

2026 평신도 월례회 공과



Methodist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감리교인의 생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저자

조은하 교수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목원대학교 상담 봉사센터장 역임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32대 회장 역임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역임
- 한국신학교육연구원 원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역임
- 제주교육선교연구원 부원장 역임
- 현)목원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현)가정-교화-마을연구소 공동소장
- 현)기독교자살예방센터(LifeHope) 교육위원장
- 현)한국기독교교육학회 총경회장, 이사
- 현)한국여성노년학연구소 교수연구위원, 여성노년학 전문가
- 수상 : 연세대학교 우수 강의상 수상, “이화를 빛낸 인물상” 수상, “연세 미래여성지도자 100” 선정 수상,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 저서 :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2005), 『사회통합과 기독교교육』(2018), “영성, 오늘에게 묻는다.” (2024)
- 공저 : 참스승,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마을목회의 유형별 사례와 신학적 성찰,
Maeul Ministry: The Missional Church in Urban Korea 등 다수 공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감리교인의 생활



목 차

머 리 말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03p
격 려 사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	04p
발 간 사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05p
들어가는 말	집필자 조은하 교수	06p

01월	고난과 은총 사이에서 피어난 복음	08p
02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12p
03월	존재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16p
04월	하나님 뜻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20p
05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24p
06월	보냄 받은 공동체	28p
07월	마음에서 시작되는 깨끗함에 대하여	32p
08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다시 묻는 제자의 길	36p
09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40p
10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44p
11월	십자가, 죽음 가운데 열린 생명의 길	48p
12월	예수님 탄생의 완성, 부활	52p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56p
-----------------	-----



머 리 말

구원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교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김 정 석 감독회장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평신도들이 순회설교와 더불어 속회를 인도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 운동은 감리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복음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리고 신앙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평신도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여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개인구원(Justification)을 넘어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에 이르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켰으며, 일제강점기의 온갖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수난 현장에서는 십자가 신앙으로 극복했고, 몇 차례 겪은 교회 분열의 시련에서도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감리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인 평신도운동의 기초이자 주춧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례회 공과가 지난 의미는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와 이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과는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교리를 신학적인 기초로 삼아 ‘죄 → 칭의(稱義·義認) → 신생(新生) → 성화(聖化·義人) → 영화(榮化, Glorification)’의 단계에 이르는 웨슬리의 구원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향해 가는 감리교인의 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임을 깨닫고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에 관해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과를 통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행복’을 누리고 감리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실천하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정성으로 집필해주신 조은하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월 이 공과를 통해 존 웨슬리가 체험으로 정리한 구원의 단계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의 빛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격려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 병 용 감독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26년 평신도 월례회 공과”를 폐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선포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을 한 번의 사건이 아닌 여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우리 감리교인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이번 공과가 특별히 소중한 이유는, 신앙을 교리적 차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감리교인의 생활”이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실천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이자, 동시에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둘째, 신앙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평신도 월례회 공과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감리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신도 월례회 공과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 공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간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다짐을 합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원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라며 <월례회공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들의 모임과 신앙에의 확신에 큰 힘을 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유혹과 위협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화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감싸안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불붙었던 초대 교회의 열정,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중보기도를 했던 열정, 낮은 곳을 찾아 기꺼이 봉사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열정. 이런 열정이 더는 찾아보기 힘들고 관성에 젖어 편한 것만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절로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해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 평신도들은 초심을 회복하고 더 열심을 내어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구원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전달될 것입니다.

올해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제2회 자랑스러운 사회봉사대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조용히 전도에의 열의를 불사르며 성과를 내는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봉사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의 믿음에의 초심이 회복되고, 이 땅의 복음화가 한 걸음 더 진척되기를 기도합니다.

<월례회공과> 집필을 맡아주신 조은하 교수님과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감리교인의 생활

- 마가복음과 함께 걷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길

집필자 조 은 하 교수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정보의 흥수 속에서 중심을 잊지 않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결단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신앙은 종종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거나, 교회 안의 활동으로만 제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 삶의 한복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길을 다시 따라 걷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간결하면서도 힘 있게 전합니다. 특히 마가는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로 복음을 시작하며, 구원이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병든 이들이 치유받고, 배제된 이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며,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길 위로 초대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교재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교회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 일터, 사회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할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모임의 기본 흐름

이 교재를 사용하는 모임은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깊은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며 마음을 엽니다.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돕습니다.

이후 해당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합니다. 본문 해설과 묵상 글을 통해 말씀 앞에 머물며 스스로 신앙의 삶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존중하며 경청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깨달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12개월 구성과 개인 묵상 안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는 12개월의 흐름에 맞추어 핵심 본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루지 못한 장이나 본문들은 개인이 따로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개인 묵상은 공동체 모임을 보완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말씀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2026년 한 해 동안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듣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내는 작지만 진실한 실천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세상이 조금 더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이 복음의 길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고난과 은총 사이에서 피어난 복음

: 마가의 기록을 따라 걷다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1장 1절

요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 월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바뀌고 한 해의 첫 장이 열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설렘과 기대만큼이나 조심스러움과 불안도 함께 찾아오는 이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후반 역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과 박해가 일상이 되었고,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고, ‘예수를 따른다’는 고백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진 복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가장 압축된 언어로 전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공동체를 다시 길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는 “곧”이라는 언어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음을 선포하며,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신앙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새해의 첫 달인 1월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은 같은 질문을 건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누구를 따라 걸을 것인가. 그래서 **1월에 마가복음을 읽는 일은 한 권의 성경을 펼치는 일을 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예수의 발걸음에 맞추어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66~70년이나 그 이후로 봅니다. 이는 네로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충격 가운데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 대황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린 네로의 조치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박해를 가져왔고, 성도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깊은 존재적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가복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흔들리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비추는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자 했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존재하지만,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무엇보다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두려워 도망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길은 결국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승리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메시아를 제시합니다. 예수의 길은 힘과 권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과 섬김의 길, 고난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은 고난이었지만, 그 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의 삶에도 다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새해의 첫 시간에 마가복음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할까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마가복음의 첫 말씀처럼

지금도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곧” 일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머뭇거림보다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새해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325장(예수가 함께 계시니)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1장 15절
요 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 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 월은 가장 추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봄을 위한 생명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오고 계시는가?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마가복음 1장은 이러한 질문에 생생하게 응답합니다. 그 중심에는 작지만 강력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곧”(εὗθυν, 즉시)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으로 열립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족보나 신학적 서문으로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가는 반면, 마가는 단숨에 우

리를 복음의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그 빠른 호흡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곧”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1장에서만 열 번이 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속도감은 단순히 문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문턱까지 다가왔고, 더는 지체하지 않는 은혜의 시기가 열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온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치셨다는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고요하거나 천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오늘 이곳에, 힘 있게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예수께서는 곧 그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곧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곧”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오래 기다린 끝에, 더는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느림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으로,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시

작된 현실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망설임보다 신뢰로 그 말씀에 곧바로 응답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1:18) 야고보와 요한도 곧 아버지와 배를 떠나 예수를 따릅니다.^(1:20) 이 “곧”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도 “곧”이라는 말은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서 곧 놀라고, 귀신은 예수 앞에서 더 머물지 못한 채 곧 물러갑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때 악은 그대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곧 들어가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곧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의 병은 곧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2월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한층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이때에, 마가 복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때가 찼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곧’ 찾아오시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두려움보다 회개의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열게 하소서.
말씀과 치유로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보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
복음에 응답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재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366장(어두운 내 눈 밝히사)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2장 5절

요 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 월은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얼어 붙었던 땅이 풀리고, 생명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계절처럼 서서히 회복을 향해 열리기를 바라는 달입니다. 이런 때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를 향해 깊은 위로와 희망을 건넵니다.

중풍병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그의 병든 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보다 훨씬 깊은 곳,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의 상처’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그의 존재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증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힌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도 초라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깊은 내적 상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존재의 병’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그 오래된 마음의 병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며, 너의 존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죄책감과 수치심, 무기력과 무가치감으로 무너졌던 그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마비는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상실감에 더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밀려났다는 고독, 스스로 삶을 이끌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 낸 존재의 마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의 병을 고치셨고 그 상처가 회복되자 비로소 그는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 능력,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영혼의 상처, 자존감이 깨어진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증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너를 예수님 앞으로 함께 데려갈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증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더 이상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존재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존재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치유받은 영혼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몸보다 깊고, 상황보다 넓으며,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문은 언제나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 열리기도 합니다. 3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치유의 빛이 새롭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내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께 갈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내가 ‘들어 주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지붕을 뜯고서라도 친구를 주님께 데려왔던 믿음처럼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굳어짐과 죄의 무게까지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받게 하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뜻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 마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18장(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3장 35절
요 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4 월은 부활의 기운이 온 땅을 깨우는 달입니다. 얼어붙었던 흙이 풀리고, 죽은 듯 보이던 나무가 새순을 밀어 올리며, 멈춰 있던 관계와 마음에도 다시 생명의 숨결이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부활은 단지 한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질서를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빛 속에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그분을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자리를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혈연을 부정하는 선언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관계의 지평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부활의 삶은, 더 이상 혈연이나 경계로 공동체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일 뿐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혈연이 아니라 ‘뜻을 함께 실천하는 관계’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우리의 신앙 모임도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혈연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져 마음 둘 곳을 잃고 “나는 혼자인가”라고 묻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혈연보다 넓고 조건보다 깊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기꺼이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모두가 다시 품 안으로 초대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을 지지하며 함께 자라는 가족이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자리, 서**

로의 소명을 존중하는 자리,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둑어 주신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생겨나는 이 새로운 가족은 혈연보다 깊고, 조건보다 넓으며,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온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결하신 가족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고,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지, 함께 머무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인지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라고, 바로 그 자리가 혈연을 넘어 생명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위로와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새 힘을 주고 있나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소서.
외로움과 상처로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이어져
서로에게 집이 되어 주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걸으며
사랑과 책임으로 서로를 품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 마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440장(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4장 26~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요 절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5 월은 생명이 온 땅에서 자라나는 달입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 새 잎이 돋고, 작게 심긴 씨앗이 놀랄 만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절 속에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앗’이라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씨 뿌리는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깊은 시선을 열어줍니다.

먼저 씨 뿌리는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에서 시작되는 나라임을 보

여줍니다. 말씀은 때로 아주 작고 조용하게 떨어지지만, 그 씨가 한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길가, 돌밭, 가시밭기”는 곧 세상의 염려, 욕망, 상처, 피로함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밭을 일구는 과정—마음을 준비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움을 보여주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넓은 가지를 펼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크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씨 뿌리는자의 비유가 ‘말씀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겨자씨 비유는 ‘말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자라서 누군가가 쉼을 얻는 공간이 됩니다.

이 두 비유는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씨앗의 능력이지만, 밭을 돌보는 일은 공동체의 몫입니다.** 누군가 마음 속의 가시를 뽑아 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며 흙을 부드럽게 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서로의 마음 밭을 돌보는 교육적·영적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느끼는 ‘성장의 더딤’ 속에 희망을 심어 줍니다. 때로는 내 안의 변화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우리 공동

체의 모습도 정체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듯, 하나님 나라는 결국 지치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품는 그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늘이 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의 씨를 각자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밭을 정성껏 돌보며, 작아 보이는 시작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심긴 씨앗이 자라도록 서로를 돋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요즘 주변에 잠시 쉬어 갈 그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떠올려 보며, 작은 관심이나 말 한마디, 짧은 기도로 그에게 어떤 따뜻함을 건넬 수 있을지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우리 마음의 밭을 살피시는 말씀 앞에 서서
굳은 땅과 가시를 내려놓고 말씀의 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디게 맺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가 자라
이웃을 살리는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보냄 받은 공동체

: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323장(부름 받아 나선 이 봄)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6장 7절
요 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6 월은 계절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달입니다. 봄의 여운은 아직 남아 있지만, 햇살은 분명히 짙어지고, 공기는 한층 강렬해집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공동체와 삶의 리듬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이런 6월의 문턱에서 마가복음 6장을 읽으면,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한 분에게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통해 세상으로 확장되는 장면이 펼쳐집니

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선교적 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보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는 익숙한 기억과 편견을 먼저 꺼내 듭니다. 너무 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믿음을 가로막고, 친숙함이 은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며물러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거절과 불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치 6월이 봄을 정리하며 여름으로 나아가듯, 예수님의 사역도 한 자리의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과 파송의 의미를 함께 묻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공과 인정을 전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심에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자주 흔들렸고, 이해는 부족했고,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모습은 선교적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보냄 받으면서 준비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둘씩 보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선교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

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파송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아가라고 하시며, 일상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단순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걸음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교적 교회는 풍랑 앞에서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두려움은 사명을 가로막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을 넘어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우십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위해 존재합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작은 것으로도 사랑을 펼치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보냄 받은 교회’입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은 무엇일까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르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맡기신 뜻을 신뢰하며
만나는 이들 가운데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깨끗함에 대하여

: 마가복음 7장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 경 말 씀	마가복음 7장 20절
요 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7 월은 교회마다 교육적 사역이 가장 활발해지는 달입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사훈련 등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 마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 교육의 중심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음식 규정은 단순한 위생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

적 울타리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통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정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율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형적 행위보다 내면의 의도와 마음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손은 깨끗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단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곁으로는 정중하지만, 마음에는 질투나 두려움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탐욕, 시기, 교만, 비방… 이 목록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인간의 그림자입니다.

음식은 금방 사라지는 물질이지만,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과 의도는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다른 이의 삶을 흔들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외형적 규범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7월의 교육적 현장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힘있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중심을 비춥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규범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

정결함은 전통을 정확히 지키는 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린 마음, 이웃을 향한 자비,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온유한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해석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깊은 거울이 됩니다. 신앙이 의식으로 흐려지고, 규범이 신앙의 중심을 대신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습관이 되기 쉬운 시대에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름 사역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사와 어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 내면에 살아 있는 진정성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우리를 다시 신앙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깨끗함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 전통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진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오랜 성경의 고백을 새롭게 확인하게 하는 장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진정한 정결함으로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 관계,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겉모습과 규례에 머물기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흘러나오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다시 묻는 제자의 길

: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8장 34~35절
요 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로 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앓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앓으면 구원하리라

8 월은 수학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절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고 땅이 쉽게 메마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곡식과 과일은 바로 이 뜨거운 시간을 견뎌내며 비로소 단단하게 여물어갑니다. 농부가 이 계절을 건너뛰고 수확에 이를 수 없듯이,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뜨거운

계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바로 그 ‘견딤의 문턱’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복음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전환선을 긋는 장입니다. 예수님이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했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8:29)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답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도의 방향과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옳았으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메시아는 여전히 정치적 승리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세상적인 힘과 영광의 언어로만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직후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수난 예고)의 길을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오해를 깨뜨리고 참된 제자도로의 전환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직후,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명확히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막 8:31)

이 선언은 영광 대신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밝힌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8:33)

이는 인간적인 성공과 계산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메시아 이해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앞서서 길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를 향해 제자도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막 8:34)

이 말씀은 신앙을 삶의 한 영역으로 두는 태도를 넘어,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판단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내려놓는 영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감수하는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복음의 깊은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려놓음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비움이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야 가을의 수확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의 길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그 길을 통과한 자리에서만 참된 생명이 열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8월을 견디며 열매를 준비하듯, 제자의 삶도 견딤과 결단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인 결단과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소서.
영광만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벗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성 경 말 씀	마가복음 11장 9~10절
요 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 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 산나 하더라

9 월은 풍성한 열매를 눈앞에 둔 계절입니다. 들판은 이미 충분히 무르 익어 절정을 이루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무엇이 진정한 알곡이고 무 엇이 버려야 할 깨질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 니다. 무성했던 여름의 성장 뒤에, 이제는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을 가려내야 하 는 계절입니다. 이런 9월의 시간 속에서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으 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겪으신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영광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외침은 기쁨과 기대, 환영으로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단순한 축제의 절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입성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는 당시 권력과 무력을 상징하는 군마나 전차 대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왕 됨은 세상이 기대하는 힘과 위엄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맞이하던 군중과 제자들은 이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말이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정치적 해방과 즉각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주님으로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뒤, 곧바로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막 11:11)
예수는 즉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바라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무엇이 속이 비어 있는 껌질인지 살피십니다. 마치 9월의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밭을 조용히 둘러보듯, 예수께서는 성전과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찬양과 환영은 풍성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나 중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환호의 기록이 아니라, 기대와 오해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예수는 군중의 기대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9월은 신앙을 점검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을 열매로 남길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떤 왕으로 맞이할 것이고 그분의 길을 어디까지 함께 걸어갈 것인가.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느끼시는지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겸손한 왕으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대와 환호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오시는 주님을 따라
환영하는 신앙을 넘어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149장(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성 경 말 쓴 마가복음 14장 22~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0 월은 낮 동안의 뜨거움을 거두고, 가장 깊은 고요와 서늘함이 내려 앉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가을밤의 고독하고 차가운 공기처럼,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깊은 어둠과 배신의 밤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가는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들판의 수확이 끝나고 나무들이 잎을 내려놓기 시작하듯, 이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을 하나씩 내어놓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 밤에는 두 개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식탁이

고, 다른 하나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떨어진 장면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건네진 사랑의 약속은 동산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고, 동산에서의 순종은 다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으로 깊어집니다. 10월이 열매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문을 여는 계절이듯,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삶이 사명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선 장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십니다. 이 식탁은 작별 인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남기신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드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의식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는 결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연약함이 이미 드러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팔 사람도 있었고, 곧 도망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듣게 됩니다. 말로 직접 명령하지는 않으셨지만, 떡과 잔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내어주며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마지막 만찬에서 선포된 말씀이 실제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깊은 고뇌를 드러내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니다. 신앙은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에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을 안은 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기에 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부탁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들고, 결국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이어지지만, 제자들의 동행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사랑의 요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이며, 동시에 제자들의 실패마저 품은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함께 깨어 있으라’는 부탁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떡을 떼어 내어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처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용기를 주소서.
연약하여 깨어 있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부족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사랑과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 가운데 열린 생명의 길 :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144장(예수 나를 위하여)

성 경 말 쓰 마가복음 15장 33~39절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1 월은 들판의 풍성했던 수확이 모두 끝난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가 비로소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는 계절입니다. 곡식은 창고에 들고, 나무는 열매를 내려놓은 채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성함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되묻게 하는 고요

가 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받은 것을 해아리는 날이 아니라, 어떤 희생 위에 이 풍성함이 놓여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마가복음 15장을 펼치면,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둡고도 가장 밝은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조롱과 침묵이 뒤섞인 언덕 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장면을 비극의 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씨앗이 땅에 묻히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씨앗의 희생 위에 놓여 있듯, 우리의 감사 또한 이 십자가 위에 놓여 있음을 이 장은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묵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虐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십자가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시작됨을 마가는 증언합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침묵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초월한 신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서, 벼랑받은 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정면으로 끌어안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움켜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내어주십니다. 그 내어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라 “구원”的 결정적 순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경계였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정체는 능력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고통을 피하게 하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셨고,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두셨습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신앙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선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사건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응답은 무엇이라고 느끼나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사랑 앞에
감사와 침묵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
버림과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삶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을 조용히 감싸 안게 하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탄생의 완성, 부활

: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160장(무덤에 머물러)

성 경 말 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요 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12 월은 단순한 연말이 아닌,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오셨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차가운 밤, 작은 마

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오심은 연약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은 결코 한 계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부활을 향해 열려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상실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부활의 기대보다, 죽음의 현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탄 이후의 삶이 늘 그러하듯,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건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은 절망이 가장 깊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부활을 설명하려 들기보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증언합니다.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들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 한 문장에는 복음의 놀라운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스스로 제자라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소식은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냅니다. 성탄이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오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실패한 인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는 처음 부르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 평범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는 부활이 특별한 신앙적 고백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말해 줍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 결국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그 무덤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은 다시 성탄처럼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삶에 오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12월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방문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부활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성탄의 계절에 부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리는 어디라고 느껴지시는지요?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빈 무덤 앞에서 들려온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처럼
끝났다고 여긴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 우리의 갈릴리로 담대히 걸어가
새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고 살아 계신 주님을 따라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1. 교인생활 수칙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돋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겸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돋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 한다.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 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발행일

2025년 12월 24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35-52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문영배

교정/교열

조은희 · 김주선

디자인

동영디자인예

비매품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Methodist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듣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작지만 진실한 실천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세상이 조금 더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이 복음의 길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조은하 교수의 '들어가는 글' 중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35-52
T. 02)399-4346~9 F. 02)399-4350